

등교 늦추기 효과...광주·전남 아침 거르는 초등생 줄었다

광주·전남 2015년 학생 건강 검사 표본 분석 보니

고3 키 10년째 내리막...식습관 탓 학폭 예방 정책에 따돌림 줄어

벌써 다 큰 걸까. 광주지역 고3 학생들의 키가 10년 전보다 되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고3 학생들의 평균 몸무게는 10년 전보다 늘어났다. 전남 고3 학생들의 비만 문제는 전년보다 심각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나쁜 식습관도 여전히 학교·가정에서의 개선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교육부가 최근 내놓은 '2015년 학생 건강 검사 표본 분석' 결과를 소개한다.

◇운동 부족? = 교육부의 표본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고3 남학생들의 평균 키는 173.1cm, 5년 전(174.2cm), 10년 전(174.4cm)에 걸쭉 되레 줄었다. "자고 나면 커 있더라"는 옛 어른들 말과는 사뭇 다르다.

광주 고3 남학생의 평균 키는 ▲1995년 171.0cm ▲2000년 173.0cm ▲2006년 174.6cm로 정점을 찍고 ▲2012년 173.9cm ▲2013년 173.0cm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전국 고3 남학생의 지난해 평균 키는 173.5cm였다.

광주 고3 여학생의 지난해 평균 키는 160.8cm로, 전년(160.2cm)보다 컸지만 5년 전인 2010년(160.9cm), 10년 전인 2005년(161.3cm)보다 작아졌다. 161cm는 2008년(161.7cm)을 최고치로 여태껏 넘을 수 없는 '벽'으로 남아있다.

전남지역 고3 남학생들의 지난해 평균 키는 173.6cm, 여학생은 160.5cm였다. 전남 고3 여학생의 지난해 평균 키는 2009년(161.2cm) 이후 가장 컸던 것으로 조사됐다.

몸무게 변화도 눈길을 끈다. 광주지역 고3 여학생의 지난해 평균 몸무게는 58.3kg, 지난 1995년(53.0kg) 이후 20년 동안 가장 늘어난 수치다. 전남 고3 여학생 평균 몸무게도 56.5kg(2015년)으로 2012년(57.3kg)을 제외하면 20년 동안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고3 여학생 평균 몸무게의 경우 ▲1995년 54.2kg ▲2000년 54.2kg ▲2005년 55.7kg ▲2010년 55.4kg ▲2014년 56.3kg 등으로 조사됐다.

20년 전 보다 먹을 거리가 많아졌지만 운동 시간보다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늘고 새벽부터 밤까지 공부하느라 수면 시간이 부족한 점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

반면, 광주 고3 남학생의 지난해 평균 몸무게는 67.1kg, 20년 전인 1995년(63.0kg)보다 늘었지만 10년 전인 2005년(69.0kg), 5년 전인 2010년(66.9kg)보다 감소 추세다.

◇더 나빠진 식습관 = 교육부 조사 결과, 지난해 1주일에 한 번 이상 햄버거·피자 등 패스트푸드를 먹는 비율은 광주의 경우 초등학생(61.9%), 중학생(75.6%), 고

등학생(80.9%)에서 모두 전년(초등 52.9%, 중등 68.2%, 고등 75.0%)보다 높아졌다. 3년 전인 2012년(초등 50.7%, 중등 63.7%, 고등 66.9%)에 걸쭉 월등히 높아졌다는 게 고소란히 드러난다.

전남 학생들도 1주일에 한 번 이상 패스트푸드 먹는 비율이 전년(초등 57.2%, 중등 74.5%, 고등 75.2%)에 비해 초등(66.3%), 중등(74.5%), 고등(75.4%) 등으로 높아졌다.

특히 초등학생의 패스트푸드 섭취율이 급격히 증가해 식습관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형편이다.

지난해 1주일에 한 번 이상 라면을 먹는 광주 초등학생(77.8%), 중학생(87.8%) 비율도 전년(초등 74.3%, 중등 85.4%)보다 높아졌다. 전남에서도 초(78.2%)·중(87.7%)·고(81.6%) 모두 전년(초 73.6%, 중 86.3%, 고 78.6%)보다 상승했다.

광주에서는 아침을 거르는 중학생(15.0%)과 고등학생(17.3%)의 비율이 전년(중 8.6%, 고 16.6%)보다 높아졌다. 초등학생의 경우 3.74%로 전년(4.9%)보다 감소해 "등교 늦추기" 효과라는 평가도 나온다.

전남의 경우 아침을 거르는 비율(초 4.7%, 중 13.4%, 고 14.3%)이 전년(초 5.7%, 중 14.7%, 고 18.3%)보다 모두 감소해 눈길을 끌었다.

광주 초·중·고등학생들은 육류를 먹지 않는 비율(초 2.6%, 중 2.1%, 고 0.8%)은 전년(초 3.0%, 중 2.8%, 고 1.5%)보다 모두 감소했다.

광주 중·고등학생들의 운동실천률(주 3일 이상)은 초 36.6%, 고 20.1%로 전년(중 33.9%, 고 24.0%)에 비해 감소한 반면, 전남 중·고등학생들의 운동 실천률은 증가했다.

하루 2시간 이상 인터넷·게임 등을 즐기는 초등학생들도 증가했다. 광주는 15.5%로 전년(10.7%)보다 늘었고 전남도 전년(13.9%)보다 늘어난 15.6%로 파악됐다.

◇학교 폭력은 줄어들어 = 최근 1년간 따돌림을 경험한 비율을 묻는 조사에서는 광주에서는 모두 감소해 교육청의 학교 폭력 예방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광주의 경우 1년간 따돌림 경험을 묻는 조사 결과, 초등학생(2.7%), 중학생(3.7%), 고등학생(0.8%)에서 모두 전년(초 5.6%, 중 5.1%, 고 1.0%)보다 감소했다. 전남의 경우 전년(초 4.8%, 중 9.6%, 고 2.0%)에 걸쭉 초등학생(3.1%), 중학생(3.3%)의 따돌림 경험률은 감소했지만 고등학생(4.1%)은 다소 증가했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현금을 빼앗긴 경험'을 묻는 조사에서도 광주(2014년 1.3% → 2015년 0.1%), 전남(2014년 1.3% → 2015년 0.9%) 모두 감소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전남 청소년들에게는 놀거나 운동할 시간이 충분치 않다. 교육부가 최근 내놓은 '2015년 학생 건강 검사 표본 분석' 결과는 광주·전남 청소년들의 건강상태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지표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과기원, 기후변화 전문가 키운다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전문강사 17명 4월6일~6월30일 강의

지난 100년간(1900~2000년) 국내 평균 대기온도는 1.5도 상승했다. 세계 평균 기온 상승률(0.7도)을 넘어선 것으로, 연안 표층 수온도 남해의 경우 최근 30년간 1.04도, 서해는 0.97도 올랐다. 해수면도 높아지고 있다. 국립해양조사원이 지난 1969년부터 국내 해수면 높이를 분석한 결과, 제주도를 포함한 남해안(3.17mm), 동해안(2.12mm), 서해안(1.36mm) 등 전체 해역의 해수면이 연평균 2.48mm 상승했다. 세계 평균 해수면 상승속(1.8mm)을 웃도는 것으로, 제주항의 해수면 상승(연평균 5.97mm)은 세계 평균의 3배가 넘는다. 기후 변화는 더 이상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이 기후변화 전문가 양성에 나선다. GIST는 12주 일정의 '기후변화 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교육 과정은 지난해 12월 파리 기후변화협약 이후 미래 사회에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이해하고 대응·적용할 수 있도록 채워졌다.

파리 기후변화협약은 2020년 만료될 예정인 교토의정서를 대체하고 2020년 이후의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방안을 담았다.

수강생들은 오는 4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12주 동안 기후변화 현황을 파악하는 것을 비롯,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보건환경·수자원 분야 대응 방안 등을 모색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미래형 자동차 산업 등 에너지·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된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극지방 등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기후변화로 인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탄소배출권과 조세관계법, 국제관계법 등 법·제도와 사회·문화적 변화와 전망에 대해서도 전문 강사진과 폭넓게 살펴볼 예정이다.

GIST는 이를 위해 민동필 유엔 사무총장 과학자문위원회 위원, 성장모 녹색기술센터 소장, 이우성 과학기술정책 연구원(STEPI) 글로벌협력센터장, 오

대균 유엔기후변화협약 정책개발체제 집행위원회 이사, 이형중 외교부 기후변화환경외교국 국장, 김영준 GIST 환경공학부 명예교수 등 17명의 전문가를 강사진으로 꾸렸다.

기후변화 아카데미는 매주 수요일 오후 7시~9시 50분까지 GIST 다산 빌딩에서 진행된다. 문의 062-715-5308.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도시개발은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경락잔금대출, 질권대출 & 부동산 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기업입니다.

NPL 관련업무를 원스톱으로!

- NPL매입 • NPL매도 • NPL중개 • NPL질권대출 • 경락잔금대출 • NPL등기업무

NPL 투자는 채권 투자다. 은행 등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해준 대출이 부실화할 때를 대비해 설정해 둔 "근저당권"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부실채권거래가 경매보다 수익성이 높으며 NPL 대박은 무량물건 선별이 중요하며 경매보다 한 발 앞선 부실채권을 노려보는 것이 월등한 수익을 창출 합니다.

NPL(근저당권)투자는 ?

- *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
- *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싶으신 분
- * 경매에 입찰하여 100% 낙찰 받고 싶으신 분
- * 양도소득세나 이자소득세가 부담이 되시는 분
- * 상가,공장,토지,숙박시설등을 반드시 낙찰받고 싶으신 분

광주지역 추천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 가능

[법률자문업무협약 법무법인 지산]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파트너스는 하나/기업/현대스위스/솔로몬 등 다수의 금융기관 담보부 NPL매입, MG질권대출협약,JB캐피탈 NPL사업협약,담보부 NPL 수익계약 매입/중개 4000억원 돌파, 수협중앙회 NPL 질권대출 수탁법인 승인된 NPL전문기업입니다.

경매 개시 이전, 이후 금융권 근저당권 채권, 개인 가압류채권 후 순위 근저당권, 가압류 채권 매입합니다.

NPL매입,중개,질권대출 담당
경매경락잔금대출 지원담당

☎ 062-383-4987
본부장 010-4557-3034
이 사 010-2170-3034

유한회사 제이앤와이도시개발

사업자등록번호 435-87-00319 / 법인등록번호 200114-0062461